

한국타이어, 3세 경영 본격화

6월1일 조현식 부사장 승진발령 ... 내수 점유율 1위 공로 인정

한국타이어는 6월1일부로 조현식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현식 부사장은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장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의 형이다.

조현식 부사장의 사장 승진은 2003년 12월 부사장 승진 이후 6년 5개월여 만이다.

다양한 보직을 거치면서 경영수업을 받아온 조현식 부사장의 사장 승진은 한국타이어 오너가의 장남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관계자는 “조현식 부사장은 2009년 한국타이어가 내수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50%를 돌파하면서 국내 타이어 시장 1위를 굳힌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조현식 부사장의 승진으로 한국타이어는 허기열 중국지역본부장, 김희중 연구기술본부장을 포함해 사장직급의 CEO가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양래 회장과 전문경영인인 서승화 대표이사 부회장, 장성곤 사외이사와 함께 한국타이어 등기이사 중 한 명인 조현식 부사장은 승진한 이후에도 마케팅본부장과 한국지역본부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라큐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조현식 부사장은 1997년 입사한 이후 해외영업부문장 등을 거쳐 현재 주한헝가리 명예영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31>